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금메달을 목에 건 이 선수를 만나 주종목이 아님에도 쾌거를 이룬 과정을 들어본다.



2대, 7대 주간교수故이규중 교수를 회고하고 대학주보 16기 박종호 씨의 학생 기자로서의 기억을 들어본다.

대학주보

자율·자유전공학부 세부교육과정 확정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자율·자유전공학부 세부 교육과정이 확정됐다. 확정안은 2025학년도 무전공 입학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자율·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미래교육 I, 미래교육 II, 전공탐색 I, 전공탐색 II 교과과정과 멘토링, SDGs(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관련 프로젝트 등 여러 비교과 과정을 거친 후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1학기는 미래교육 I (2학점)과 전공탐색 I (3학점)을, 2학기에는 미래교육 II (1학점)와 전공탐색 II (2학점)를 수강한다. 이중 미래교육 I·II, 전공탐색 I, 멘토링 프로그램, 기초 상담 1회, 전공 상담 2회를 필수로 이수해야 전공 선택 기회가 주어진다. 기초 상담은 전공 탐색 교과목을 맡은 교수와 1회, 전공 상담은 각 단과대 전공 교수와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전공탐색 II는 자율전공학부에는 2명의 상담 교원이, 자유전공학부에는 3명의 상담 교원이 배정된다. 상담 담당 문진숙(자율전공학) 교수는 정보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밝혔다. 문 교수는 “단과대 교수님들과 협력하고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정서적 지원을 원하는 학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자율전공학부
학부장, 전담 교수 위주 수업

자율전공학부 미래교육 I은 AI 리터러시를 토대로 SDGs 가치를 교육하는 온라인 세미나 형식의 수업이다. 김진상 총장,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 김상욱 교수, 김필립 교수 등의 명사가 참여한다.

전공탐색 I은 이정희(자율전공학) 학부장과 전문 상담 교수 수업, 단과대 교수 강의, 전공 선택 박람회, 현장 방문 수업을 진행한다.

2학기 미래교육 II는 I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온라인으로 파이썬을 공부하고 이를 활용해 AI 자율주행 자동차 실습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공탐색 II는 각 단과대 전공 기초 교과목 대체 인정 과목이다.

국제캠 자율전공학부
모든 학과 전공 이수 체계 개편

자율전공학부 미래교육 I은 총 6개 분반으로, 기존 후마 소속 교수로 구성된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인 기술, 환경, 국경, 정의를 배운다. 해당 강의는 지도교수 강의와 우리학교 대표 학자 특강, 그리고 주제 심화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이는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하는 자율전공학부와 달리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전공탐색 I은 지도교수 강의, 각 전공 대표 교수 초청 특강, 학생 주도 진로 탐색과 전공 탐방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된다.

3면에 계속 →



지난 28일 평화의 전당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김진상 총장은 “신입생 여러분의 첫 걸음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세종 기자)

‘경희의 미래’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열려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지난달 28일, 평화의전당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식전 퍼레이드-1부 본행사-2부 환영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본행사는 ▲경희개관 ▲총장 환영사 ▲학생 명예선언 ▲축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본행사에는 미래문명원 신진숙 부원장, 김진상 총장이 참석했다.

입학식에 자리한 김 총장은 신

입생 입학에 허가하고 “처음으로 하늘을 만난 어린 새에게, 처음으로 땅에 올라온 새싹에게 처음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같은 근원적 질문의 대답을 찾으면서 처음을 다시 설계하길 바란다”며 “신입생 여러분의 첫 마음, 첫 표정, 첫걸음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만난 새내기 권수한(응용수학 2025) 씨는 “어

릴 때부터 학교가 너무 예뻐서 무조건 경희대를 와야겠다 싶었는데 입학하게 돼 너무 기분이 좋다”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지치고 힘들지만 대학에 와서도 끝까지 공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이번 입학식에도 지난 해에 이어 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부모 초청 행사가 열렸다. 입학식의 실시간 모습은 크라운관에 자리한 학부모들에게 중계로 송출됐다.